

사우디와 1-1 무승부... 발걸음 무거워진 홍명보호

22일 오만전이 런던행 결승전

승점 1점 차 간신히 1위

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의 7회 연속 본선 진출을 향한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현지 시간) 런던올림픽 아시아 지역 3차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4차전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비긴 경기였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김보경(세레소 오사카)의 동점골이 없었다면 런던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이 저만치 멀리 날아갈 뻔했다.

공교롭게도 '홍명보호'는 출범 이후 중동 원정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요르단과의 2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긴 홍명보호는 지난해 11월 3차 예선 카타르 원정에서도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달 일본 오카나와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태국 킹스컵 출전, 카타르 도하 전지훈련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자신했지만 이번 사우디 원정에서도 자족 문턱까지 경험한 끝에 1-1로 힘겹게 비겼다.

중동 원정으로 치른 세 경기를 모두 무승

올림픽축구 A조 중간순위 6일 현재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Table with 5 columns: Rank, Team, W, D, L, GF, GA, Pts. Shows South Korea at 1st place with 8 points.

Table with 2 columns: Rank, Opponent, Score. Shows South Korea's results: 5th place 2:22 vs Oman, 6th place 3:14 vs Qatar.

부로 끝낸 한국은 오는 22일 오만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2승1무1패로 승점 7을 확보한 오만은 1점 차로 한국(2승2무·8점)을 바짝 뒤쫓고 있다.

따라서 오만과의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이번 한국은 조 2위로 밀려나 3월 카타르와의 홈 경기를 이기고 나서 오만-사우디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오만전에서 비기면 조별리그 최종전인 3월 카타르와의 홈 경기에서 이길 경우 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된다. 카타르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오만-사우디 경기 결과에 따라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은 있다.

런던올림픽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은 각 조 1위를 차지한 3개 나라가 본선에 직행하고, 조 2위 세 나라는 3월 말 베트남에 모여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이 플레이오프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4월 영국 코벤티리의 코벤티리 스타디움에서 아프리카 예선 4위 세네갈과 단판 승부로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놓고 겨룬다.

물론 한국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만을 원정 경기에서 물리치고 조 1위를 확정 짓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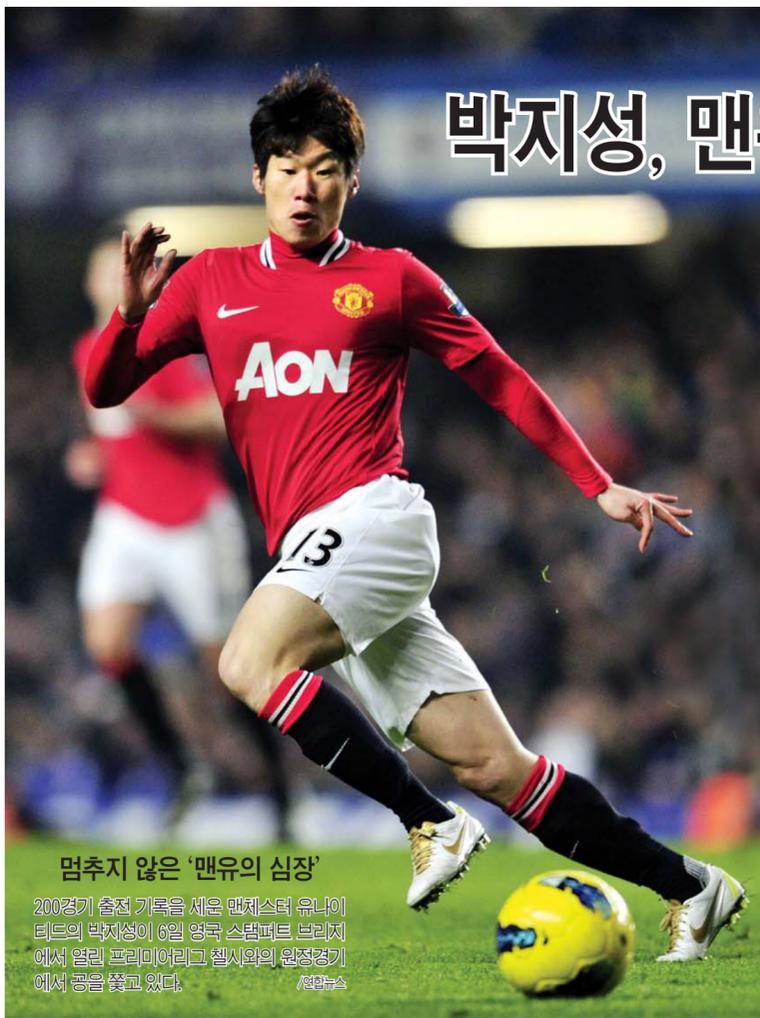
홍명보 감독은 "중동 원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완해야 할 것은 없다. 아직 오만전까지 시간이 있다"고 여유를 잃지 않았다.

홍 감독은 "22일 오만전은 가장 중요한 경기다. 남은 기간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죽다가 살아난 기분" 5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의 프린스 모하메드 빈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조별리그 4차전 대한민국 대 사우디 경기. 김보경이 후반전 종료 직전 동점골에 성공한 뒤 환호하고 있다.



박지성, 맨유서 200게임

맨유 134년 역사에 92명 뿐 리그우승 4회 27골·26도움 EPL 2선수 중 최고 성공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소속인 박지성(31)이 맨유 유니폼을 입고 200차례 출전 기록을 세웠다.

박지성은 5일(현지시간) 영국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2011~2012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3-3으로 맞선 후반 39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이로써 맨유 입단 6년7개월 만에 2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굉장한 선수들이 즐비한 맨유 같은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에서 출전 기회를 꾸준히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맨유가 1878년 창단한 이후 134년 동안 개인 통산 200경기 이상을 뛴 선수는 박지성을 포함해 92명뿐이다. 100경기 이상을 뛴 선수도 200여 명에 불과하다.

맨유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박지성이 대기록을 세웠다.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박지성은 "만가지 않는다"며 "맨유에서 뛰는 게 좋고 맨유에서 뛰는 동안 추억도 많이 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후반 39분 대니 웰벡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프리미어리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컵, 잉글랜드축구협회컵, 클럽월드컵 등을 포함해

박지성 프로필: 출생 1981년 2월 25일, 신장 178cm, 체중 73kg, 소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MF). 주요 경력: 2012. 2월 5일(현지시간) 맨유 입단, 6년 7개월 만에 200경기 출전, 2011. 1월 국가대표 은퇴, 2010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 2006 독일 월드컵 국가대표, 2005. 7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잉글랜드) 입단, 2002. 12월~2005. 6월 PSV 아인트호벤(네덜란드), 2002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2000~2003 고교 마블 상(개인).



맨유에서 200경기째 출전하는 순간이었다. 세 골을 허용한 뒤 세 골을 만회하고 마지막 10여 분이 남은 고비에서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은 선수가 박지성이었다.

박지성이 맨유에 입단한 것은 2005년 7월. 퍼거슨 감독이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뛰는 박지성을 최소한 20차례 이상 직접 지켜보고서 이적료 400만 파운드(추정·당시 약 73억원)를 내고 데려갔다.

박지성은 2005년 12월 버밍엄과의 리그컵(칼링컵)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 이듬해 2월에는 같은 대회에서 맨유 입단 후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박지성은 2007·2008·2009·2011년 등 4차례 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맛보기도 했다.

박지성은 작년 8월 맨유와 2012~2013시즌이 끝날 때까지 뛰기로 계약을 다시 함으로써 맨유에 꼭 필요한 베테랑임을 보여줬다.

나상욱 5위

PGA 투어 피닉스오픈

재미교포 나상욱(29·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 시즌 다섯 번째 대회인 피닉스오픈에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나상욱은 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스토크데일TPC(파71·721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쳤다.

3라운드까지 공동 23위였던 나상욱은 최종합계 11언더파 273타를 기록해 버바 왓슨(미국) 등과 함께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달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에서 골프 역사에 남을 역전패를 당했던 카일 스탠리(미국)는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해 생애 첫 우승컵을 가져갔다.

선두에 무려 12타 뒤진 공동 23위로 출발한 나상욱은 2.3번 홀에서 버디를 연달아 잡은 뒤 5번 홀(파4)에서 버디 하나를 더 추가해 초반 9개 홀에서 3타를 줄였다.

11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했으나 남은 홀에서 버디 4개를 추가해 이날만 6타를 줄였다.

특히 17번 홀(파4)에서 공을 워터 헤저드에 빠뜨려 1벌타를 받았으나 20m가 넘는 거리에서 칩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어 버디를 기록했다.

공동 3위로 출발했던 재미교포 존 허(22)는 1타를 잃어 공동 12위(9언더파 275타)로 떨어졌다.

Large advertisement for HK Carland featuring car accessories, tires, and Meguiar's produc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